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

敬請

符校長指正

陳桐生敬贈

2005. 10. 29

(这是拙著《中国史官文化与史记》的
韩文译本，原著在台北天津出版社出版)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

중국 사관문화와 사기

펴낸곳/ 청계출판사

펴낸이/ 허 탁

지은이/ 천통성

옮긴이/ 장성철

편집·교정/ 이요성·장성철

영업/ 주현욱

디자인/ 햇살뚝단배

인쇄·제책/ 한영문화사·일광문화사

초판 1쇄/ 2004년 1월 30일

주소/ (135-928)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0-16번지 402호

출판등록/ 1999년 4월 1일 제1-19호

전화/ 02-552-5888

팩스/ 02-552-5889

E-mail/ chungkye@chungkye.co.kr

Homesite/ www.chungkye.co.kr

© 2004, 장성철

ISBN 89-88473-61-2, 93910

값 32,000원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

|| 중국 사관문화와 사기 ||

천통성 지음 | 장성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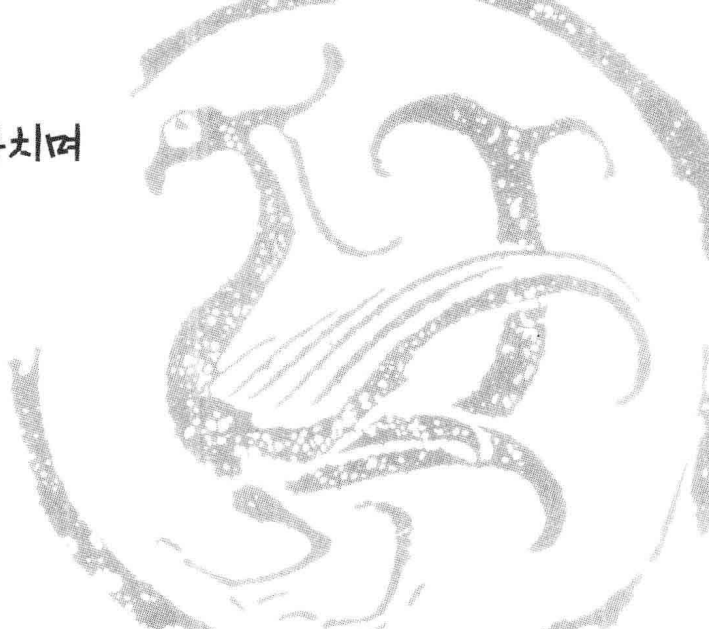
청계

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고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관통하여, 일가의 말을 이룬다

번역을 마치며



이 책은 1997년 대만의 문진출판사에서 출간한 천통성 교수의 『중국 사관문화와 사기』(中國士官文化與史記)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천통성 교수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기』 전문가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 전 『역사의 혼 사마천』이라는 책이 번역 소개되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역자가 알기로 국내에는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연구서적이 그리 많지 않다. 부분적으로 『사기』가 소개된 지는 오래 되었으나 『사기』의 완역본(까치, 1995)이 출간된 것은 불과 9년 전의 일이고, 이후로도 뚜렷한 연구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출간된 단행본을 기준으로 할 때, 버튼 윗슨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하야사다 신노스케의 『인간 사마천』, 다케다 다이준의 『사마천과 함께하는 역사 여행』, 천통성의 『역사의 혼 사마천』 등 해외의 저작물을 우리말로 옮겨 출판한 것을 제외하면, 자체적 저작물로는 이성규의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과 홍순창의 『사기의 세계』가 전부이다. 그나마 이들 연구는 대체로 사마천의 전기 내지는 평전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국내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기』에 대한 정보는 극히 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컨대, 『사기』는 황제로부터 한무제 말기에 이르는 2,600여 년의 중국 역사를 기전체 형식으로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 사마천이 궁형의 치욕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마침내 『사기』를 저술했다는 것 등이다. 『사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나 학술적 연원, 『사기』에 스며 있는 사마천의 사상체계와 같은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기』에 관해 익히 들었음에도 정작 그 맛과 깊이는 느껴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마천은 단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사기』를 지었는가? 사마천은 어떤 기준으로 열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평가하고 기술했는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갖가지 전설과 신화, 점성술, 천문역법 등을 자세히 거론한 의도는 무엇인가? 궁형을 당한 후 자결을 선택하지 않고 치욕을 참아가며 역사책의 저술에 몰두한 사마천의 심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사마천은 한나라 왕조를 옹호했는가, 아니면 비판했는가? 『사기』의 사상은 도가에 가까운가 유가에 가까운가? 『사기』는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서인가 한 개인의 사찬서인가? 사마천은 과연 동중서의 제자인가? 사마천이 자신에게 궁형을 가한 현실정치를 비방하기 위해 『사기』를 지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 …… 이런 질문을 보고 궁금증이 발동하는 독자라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 가운데 하나는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결코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인 천통성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문학자이며, 그가 현재 교편을 잡고 있는 곳도 국문과(中文系)이다. 사

마천의 전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 쓴 『역사의 혼 사마천』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필력은 이 책에서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장과 9장 등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조금 딱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밖에 다른 부분은 무리 없이 읽어내려 갈 수 있다. 특히 전국 시대의 사람문화를 논하고 있는 제3장과 사마천의 생명체험과 문화심리를 논하고 있는 제4장은 한 편의 문학 작품처럼 술술 읽힌다. 역자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학자가 과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은나라 시기 갑골문이 쓰여질 당시부터 존재했던 중국의 ‘사관’이라는 직책이 수천 년을 내려와 사마천이라는 인물을 만났으로써 『사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사관’은 원래 국가의 대사를 기록하는 업무 외에도 국가의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하늘을 살펴 역법을 연구하는 ‘천관天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관은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모두 정통하여 양자를 매개하는 독특한 직업의식과 문화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사마천이 『사기』의 저술 목표를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고,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관통하여, 일가의 말을 이룬다”는 말로 개괄했던 것은 그 자신이 바로 이러한 중국 사관문화 전통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천 이전에도 중국에는 『춘추』, 『국어』, 『전국책』, 『세본』, 『초한춘추』, 『여씨춘추』 등 몇 권의 역사책이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춘추』가 보여준 왕도문화 철학은 사마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춘추』의 내용이 모두 공자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사마천은 그렇다고 보았다. 그는 500년마다 찾아오는 왕도의

운명이 공자 이후 자신에게 이어졌다고 확신했으며 그로부터 엄청난 자긍심을 느꼈다. 그런 자긍심을 바탕으로 역대 제왕들의 행적과 한왕조의 현실정치를 평가하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마천의 개인적인 품성은 전국 시대를 풍미했던 선비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삐풀린 듯 자유분방한’ 기질을 갖고 있었으며, 학술을 통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위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강개하며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강했던 전국 시대의 ‘사림문화’는 사마천의 인격과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사마천이 무모한 줄 알면서도 이룸을 두둔하다가 궁형을 당하게 된 것은 전국 시대 사림에 가까웠던 그의 성품과 관련이 있으며, 열전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사기』의 평가 역시 이러한 사림문화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사마천으로부터 천년 전 주나라의 주공은 새롭게 예악을 제정하여 왕도의 모범을 보였다. 그로부터 오백 년 후 공자는 예악이 무너진 자신의 시대를 한탄하며 『춘추』를 지어 후세의 법도로 삼았다. 사마천은 자신이 제2의 공자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굳게 믿었다. 그가 궁형의 치욕을 뒤로하고 분발하여 『사기』를 저술할 수 있었던 거대한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었다. 사마천은 여기서 정신적 위안을 얻었고 항상 시들지 않는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공자가 『춘추』를 통해 제왕의 법도를 만들어 훗날의 성인을 기다렸듯이,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하여 ‘환관宦官’이 아닌 ‘사관史官’으로서 자신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기다렸다. 천통성 교수는 결론에서 『사기』야말로 중화민족의 수천 년 문화에 대한 기록과 총결산인 동시에 사마천의 위대한 인격의 체현이며, 사마천의 심적 창조와 생명의 결정체이기도

하다고 평가하였다.

얼마 전 천통성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한국어판 서문을 써 달라는 역자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또한 자신의 원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을 하나 하나 수정하여 보내주었다. 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막힌 내용을 질문했을 때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청계출판사 허택 사장님과 거친 문투를 꼼꼼하게 다듬어 주신 이요성 주간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건이의 양육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아내 손봉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갑신년 벽두에

분당 무지개마을에서, 장성철 쓰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중국 사관문화와 사기』는 필자가 11년 전에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중국의 ‘사관 문화史官文化’라는 시각에서 『사기』를 연구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책으로 출간된 이후 국내외에서 비교적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후 중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계에는 사관문화에 관한 글이 속속 나타났는데, 이러한 글들은 필자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으며, 필자 스스로도 『사기』에 대한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육경이전六經異傳과 제자백가의 저작을 읽어가면서 『사기』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사기』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사마천 이전 사관문화의 제반 요소들 가운데 공자가 지었다는 『춘추』의 영향이 사마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춘추』에 대한 전국·진한 시기의 해석들은 중국문화가 한 차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사기』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춘추』는

한 권의 평범한 노나라의 역사책에서 발전하여 공자의 이름과 묶이게 되었고, 육경 가운데 하나로부터 모든 경전을 압도하는 경전으로 성장했으며, 하나의 역사 대사기(大事記)로부터 한왕조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로 자리잡았다. 『춘추』의 발전사는 사실상 중국이 공자를 자신들의 문화적 대표로 삼는 과정이자 중화 민족문화가 유학을 학문의 종주로 선택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마담과 사마천이 『사기』의 모범으로서 공자와 『춘추』를 선택했던 것은 그들 개인의 정서나 기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선택이자 문화의 선택이며 중화민족의 이성적 선택이었다. 사마천은 『춘추』의 기치아래 “육경에 관한 상이한 해석을 한데 모으고, 백가의 잡다한 말을 가지런히 고른다” 하였고, 학술을 통해 제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제왕의 정치를 지도함으로써 『사기』로 하여금 『춘추』를 이어 또 하나의 사상문화의 이정표가 되게 하였다.

한국의 한학(漢學)은 예로부터 그 뿌리가 매우 깊다. 또한 한국 독자들의 『사기』에 대한 관심은 중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출간된 『사기』 관련 책들이 적지 않으며, 중국에서 『사기』 관련 전문서를 출판한 학자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의 장성철 선생으로부터 필자의 줄서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어판 서문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이 한·중 문화교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믿으며, 한국의 독자들로부터 이낌없는 질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3년 12월

천통성

저자 서문



1985년 5월, 나는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동북사범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양공기楊公驥 교수 문하에서 선진先秦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였다. 입학 절차를 막 밟고 있을 무렵, 양 교수께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양 교수는 내가 오래 전부터 존경해 왔던 덕망 높은 학계의 대선배였다. 나는 우리 학계가 양 교수와 같은 학술거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로부터 수학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무한대학 중문과의 왕계흥王啓興·장홍張虹 교수 부부는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섬서사범대학 문헌연구소의 곽송림霍松林 교수에게 추천해 주었다. 곽 교수께서도 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글이 곧 출판되는 시점에서 나는 선배학자들이 열정을 기울여 후학을 이끌어 주신 고상한 사덕師德에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왕 교수와 장 교수 부부의 추천으로 곽 교수가 내게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이 글은 아마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일찍이 학부 때부터 나는 왕백상王伯祥의 『사기선史記選』과 정권중鄭權中的의 『사기선강史記選講』을 보았고, 북경대학교에서 편찬한 『양한문학사참고자료兩漢文學史參考資料』의 『사기』 부분과 일부의 『사기』 관련 논문을 읽었다. 당시는 『사기』 전체를 읽지 못했던지라 『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제기할 수 없었다. 그 뒤에 『사기』 전체를 통독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중국철학사, 중국사상사, 중국문학사 및 일부 『사기』 논저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연구해보려고 마음먹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게다가 섬서陝西는 사마천의 고향이었으므로 섬서사범대학교에 온 뒤로 『사기』를 탐구하려는 나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결국 『사기』를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정하고 논문의 주제를 확정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 나는 논문 주제를 「사마천의 문화심리 분석」이라고 정했다. 『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사마천이 감정이나 기질 면에서 전국 시대 사림에 근접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국 사림문화가 『사기』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 『사기』의 가장 진보적인 사상 요소들은 모두가 전국 사림문화를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과학적인 문화심리학의 이론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심리’라는 용어는 비록 학계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이지만, 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자의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문화심리에 대한 분석은 공허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꼭 교수는 논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자료적 기초 위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기해야 하며, 한 마